

## 온라인 예배 또는 주일 가정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에게 드리는 예배지침

- 1) 집에서의 편한 복장 보다 단정한 복장을 입습니다.
- 2) 본인이 사용하는 성경책을 준비합니다.
- 3) 온라인 예배는 10분 전에 미리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예배 화면과 볼륨을 준비합니다. 가급적 화면이 큰 컴퓨터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4) 가족이 함께 온라인 예배 참여시에는 각자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지 말고 컴퓨터 같은 가장 큰 화면 하나로 함께 드립니다.
- 5) 주일 가정예배서를 이용하시는 가정은 미리 가족 수 만큼 순서지를 준비합니다. 설교는 설교자만 설교 요약본을 준비합니다.
- 6) 헌금은 온라인 계좌를 통해 정성껏 봉헌합니다.
- 7) 온라인 예배 참석과 이름을 남깁니다.
- 8) 예배 후에 가족들과 함께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눕니다.
- 9) 코로나19사태의 퇴치와 치유, 회복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 주일가정예배 순서

2020년 3월22일  
인도자 : 가족 대표

**기 원** ..... **인도자**

- 1 여호와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 4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공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 6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시편 23:1,4,6)

날마다 우리를 먹이시고 지키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모인 우리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의 삶은 질병으로 인한 두려움과 근심에 쌓여 있으나,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능력있으시고, 세상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소망하며 예배하기 원하오니 우리의 예배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 응답하여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 ..... **다같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 송** ..... **91장** ..... **다같이**

- 1.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후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 2.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 3.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 4.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기 도 ..... 가족 중

성경봉독 ..... 마태복음 5:4 ..... 인도자

5:4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설 교 ..... “울고 있나요?” ..... 인도자

기 도 ..... 설교자

찬 송 ..... 144장 ..... 다같이

1.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2.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야 죽였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3.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4.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주기도문 ..... 다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광고)

1. 코로나 19 사태의 빠른 종식과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교회 회중예배가 속히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헌금안내

중앙교회 공식계좌로 이름과 헌금종류를 적어 송금하시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예) “이름+감사” / “이름+주일” / “이름+십일”

중앙교회 공식계좌 : 기업은행 022-046724-04-012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중앙교회

## 울고 있나요?

(마태복음 5:4)

당신은 언제 울어 봤나요? 왜 울었나요? 누구 앞에서 울었나요? 하나님 앞에서 우는 자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팔복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입니다. “애통하다”는 헬라어로 ‘펜수운테스’인데, 계속되는 습관을 담은 ‘현재형 동사’로서 ‘울보’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애통하다”는 것은 사랑하는 자가 죽었을 때처럼 강렬한 슬픔, 격심한 비통을 의미합니다. 성도는 많이 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안목으로 내 영의 상태를 볼 때 애통하게 됩니다. 세상은 애통에서 벗어나려고 힘을 추구하지만, 기독교는 애통이 복되다고 합니다. 참된 애통 즉 영적인 슬픔은 하나님의 마음을 녹이기 때문입니다. 애통은 하나님 초청장으로서, 하나님의 위로와 복을 부릅니다. ▶복이 되는 기독교인의 애통에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①인간적인 슬픔(질병, 이별, 상실, 아픔, 실패 등). 인간적인 슬픔이라도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오면 복이 됩니다. 하나님이 위로하지 못할 애통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치유할 수 없는 슬픔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애통을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십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우는 것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눈물이 양약처럼 슬픔을 씻어 줍니다. 내가 울어야 스트레스가 사라지고, 마음이 치유되고, 완악한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막혔던 것들이 뚫립니다. 가장 인간적이면서도 가장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람이 됩니다. ②죄에 대한 애통(경건한 슬픔). ‘아! 복이 있도다. 사랑하는 자의 죽음을 애도한 것 같이 자기의 죄에 대해 슬퍼하는 자여, 그대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리라.’ 죄가 즐거움이 아니라 고통이라고 느껴지도록 슬퍼해야 합니다. 죄에 대한 애통은 진정한 성화와 성숙을 가져옵니다. 죄에 대해 아파할 때 거룩함에 이르게 되고, 깨끗한 양심을 소유하게 됩니다. 탄광 광부의 몸에서 눈과 치아만 하얀 이유는 수시로 물이 나와 닦아주기 때문입니다. 매일 눈물로 회개하지 않으면 거룩함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회개의 눈물은 위로의 씨앗입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며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시51:17). ③이 세상의 악을 슬퍼하는 것(사회적 양심). 이 세상에 있는 타락, 거짓, 비리, 죄악, 착취, 불의 때문에 아파할 때 복이 있습니다. 기독교인은 사회 문제들을 안고 슬퍼해야 합니다. 세상의 문제 때문에 “상한 심령”이 되어야 합니다. 참된 기독교인은 다른 사람들의 죄 때문에도 애통합니다. 바울은 동족 이스라엘의 불신앙 때문에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었고(롬9장), 고린도교회의 분란 때문에 마음에 큰 놀림과 걱정이 많았습니다(고후2장). ④ 눈물의 사역(타인을 위한 중보). 옴은 늘 타인을 위해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생의 날을 보내는 자를 위해 내가 울지 아니하였는가? 빈궁한 자를 위해 내 마음에 근심하지 아니하였는가?”(욘30:25). 암브로시우스 주교는 방탕한 어거스틴을 위해 기도하는 어머니 모니카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눈물로 기도한 자녀는 망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느헤미야, 호세아, 바울 등이 눈물로 세상을 위해 사역했던 분들입니다. 예수님은 ‘슬픔의 사람’이요 고통을 잘 아는 분이므로, 세상을 위해 많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슬픔’을 품고,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봐야 합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위로해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닦아주시고 들어주시고 달래주시고 어루만져주시고 쓰다듬어주시고 가라앉혀 주심으로 위로하십니다. ‘위로하다’(헬, 파라칼레오)는 것은, 곁에서 격려하시고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위로는 성부, 성자, 성령 모두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메시아 예수님께서 땅에 계실 때 우리를 위로하셨고, 내주하시는 보혜사 성령님도 위로하십니다. 종말에는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겨 주실 것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계 21:4).